

서울신문

독립운동가였던 '나의 아버지 최재형'

입력 : 2019-09-17 17:22 | 수정 : 2019-09-18 01:54



일제강점기 연해주 항일독립운동 대부인 최재형(1860~1920)의 독립투쟁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. 최재형의 딸 올가 페트로브나와 아들 발렌틴 페트로비치의 육필 원고를 러시아 전문가인 정현 전 모스크바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긴 '나의 아버지 최재형'(표지·도서출판 상상).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을 지냈으면서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면모가 상세하게 드러나 눈길을 끈다.

함경북도 경원에서 노비인 아버지와 기생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재형은 어린적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 무역업으로 큰 부를 쌓았다. 이를 기반으로 항일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이끌었지만 국내에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. 한민족평화재단